익산시, 추경예산 1조9000억 편성

본예산 대비 918억원 증액… '민생 · 청년 · 재난' 에 중점 둔 사업 예산안 시의회 제출

익산시가 올해 첫 추경예산을 1조 9,026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지난 2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익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인 1조 8,108억원보다 918억원(5.1%) 증액된 1조9,026억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810억원(4.9%) 늘어난 1조7,34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08억원(6.9%) 증가한 1,683억원이다.

시는 장기화하는 경기 불황에 따른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해 민생 안정을 이루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실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54억원 △구시장 지중화 사업 12억원 △전북 익산형 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9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희망더드림) 지원사업 5억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5억원 △청년창업 소상공인 내일 인건비 지원사업 1억원 등을 편성했다.

청년을 지원하고 윤택한 복지 혜택을 위해 △모아복합센터 건립 48억원 △신혼부부 ·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7억원 △다둥이 사랑 지원금 4억원 △익산형 근로청년 수당 3억원 △신혼부부 ·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8억원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1억원 등을 반영했다.

재난 재해에 대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마련됐다. 시는 △익산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20억원 △왕궁 에덴프로젝트 기본 구상 8.5억원 △수소버스 보급 5.4억원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지원사업 1.6억원 등을 예산안에 포함했다.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2억원 △익산천 준설공사 7억원 △동연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 4.6억원 △중앙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화 공사 3.9억원 △서수-평장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 건설 3.7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농업기반시설정비 31억원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사업 9.1억원 △신흥공원 유아숲 조성 5억원 △산사태 피해 복구사업 5억원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4억원 등이 예산안에 담겼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추경은 세수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도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장 "새 정부 출범 앞서 대응 전략 수립"

익산시, 대선공약 연계 국가 예산 대응 보고회 개최

익산시는 지난 2일 정헌율 시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한 국가 예산 확보 대응 전략 마련과 투표율 제고를 위한 마지막 독려 활동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 시장은 "내일 대선 결과가 발표되면 곧바로 새 정부 국정기조가 시작된다"며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익산시가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고, 국가 예산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실제 시는 4일 오전 '대선공약 및 국가예산 대응 보고회'를 열어 새 정부에 대응한 실질적 전략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정 시장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익산과 연계 가능한 내용을 최대한 분석하고, 각 부처 · 국회와의 유기적 대응 체계를 조속히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익산시의 사전투표율이 호남 5대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적 참여 의지가 매우 고무적이고 자랑스럽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투표는 시민의 권리이자 책임이며, 익산은 이미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모범을 보였다"면서 "내일 본투표까지 모든 공직자가 투표율 제고를 위한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사전투표 기간 공직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위해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하고, 부서별 권장 투표소를 안내하는 등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은 물론, 세대별 맞춤형 홍보 등 투표 독려 행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고온기 고추 병해충 피해 위험… 적기 방제 당부

진딧물 · 총채벌레 등 매개 바이러스 주의

익산시는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고추 병해충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농가에 예방 중심의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 고추 재배 농가는 약 1,460호, 총 재배 면적은 254㏊로 양념채소 중 대표적인 소득 작목 중 하나다. 장마철을 앞두고 탄저병 · 역병 · 바이러스병 등 주요 병해충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각별한 사전관리가 요구된다.

시는 방제 시 작용 기작이 다른 약제 2~3종을 7일 간격으로 교차 살포하고, 꽃과 잎 뒷면까지 약액이 골고루 묻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충의 서식처가 되는 논밭 주변 잡초도 반드시 제거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농약은 비가 오기 전 식물체 전체에 고르게 살포하고, 살포는 아침이나 저녁의 서늘한 시간대에 실시해야 효과가 높다. 농약 안전사용 수칙도 함께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고추 생산을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 방제와 생육관리가 중요하다"며 "고품질 고추 생산을 위해 농가와 함께 병해충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갑오징어 산란 · 서식장 조성 '순항'

군산 옥도면 해역에 2028년 까지 조성… 지역 수산업 활성화 기대

군산시가 오는 2028년까지 옥도면 해역에 갑오징어 산란 · 서식장을 조성하고 나서 수산자원 증대와 어민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갑오징어 산란 · 서식장 조성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40억 원으로 사업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며, 올해 사업비는 총 8억 원이다. 시는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2년차 사업에서는 갑오징어 은신처 및 알 산란장 제공을 목적으로 산란시설물(갑오징어 통발) 900개를 비안도, 방축도, 연도 해역에 각각 300개씩 설치하였다.

이는 갑오징어가 4~6월(15~20℃)에 수심 2~10m 이내의 연안에서 암반, 해조류, 해초, 해저 구조물 등 부착기질에 알을 붙여 산란하는 습성에 착안한 것이다.

방축도 어촌계에서도 인공 해조장(2mx2m) 10개소를 시범 설치하여 산란장 난 부착율의 비교분석과 부화 모니터링을 통해 산란율을 높이는 등 조성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갑오징어 산란 · 서식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개발된 갑오징어 홍보 캐릭터 '갑토리'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귀엽고 친근함이 돋보이는 캐릭터 '갑토리'는 앞으로 △군산의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 브랜드 인지도 상승 △시민과의 활발한 정서적 소통 △갑오징어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등의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이를 대비해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캐릭터를 타인의 무단 사용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 독점을 위해 디자인 · 상표 출원도 진행했다.

이런 다각도의 사업을 통해 시는 갑오징어를 지역 대표 어종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갑토리' 활용 홍보물 제작 △각종 축제 등에 홍보 · 판매부스 등도 추진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성원 어업정책과장은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과 함께 해당 어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캐릭터 개발이 군산 갑오징어를 널리 알리고, 지역 수산업과 관광 활성화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지역 드림패럴림픽 공모사업 선정

초 · 중등학생 대상, 장애 인식 개선 교육 · 스포츠 체험 운영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 드림패럴림픽'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장애인체육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3개소가 선정됐으며, 익산시 장애인체육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익산시의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사업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억 원을 확보했다.

지역 드림패럴림픽은 초 ·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인 스포츠 체험을 제공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장애인 스포츠를 경험하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포용과 공감의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익산시장애인체육회는 익산반다비체육센터의 우수한 시설을 바탕으로 전문강사들을 배치해 참여 학생들에게 생생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구성 등 준비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 활동을 지속 확대해, 시민 누구나 체육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지역 드림패럴림픽 사업이 학생들에게 장애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익산이 따뜻하고 포용적인 도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평생교육이용권 6일까지 신청 접수

군산시가 '2025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 접수를 오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산시민, 전북도민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 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관내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 성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 방법은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www.llllcard.kr/jeonbuk)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발표는 6월 16일 예정이며, 선정자에게는 신청서에 작성한 연락처로 개별 통지가 이루어지고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되면 1인당 이용금액 35만원이 제공되며, 이용은 NH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NH농협채움카드를 발급받아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형 평생교육 이용권 전용 상담센터(☎1899-8301)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립도서관, 어린이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립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진로 인식을 기르기 위해 초등학생 (3~5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로봇공학자, 방송콘텐츠 기획자 등 각 분야의 전문 강사와 함께 자신의 흥미와 적성 등을 탐색해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도서관은 방송콘텐츠 기획자 · 네일 아티스트 · 댄스 트레이너 · 간호사 · 로봇 공학자 등 요즘 어린이들 흥미로워하는 5가지 직업인의 특강과 체험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군산시립도서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군산시립도서관 도서진흥계(☎063-454-563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